

제5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

핀테크의 날개, 法!

세미나 행사배경

제4차 산업 혁명으로 ICT 융합과 지능화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자율 주행, 블록체인 등과 같은 신기술이 산업 전반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금융업에서는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을 결합한 핀테크(Fintech)가 미래 성장 동력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핀테크는 더 빠르고 더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원하는 소비자들의 트렌드에 발빠르게 대응하면서 전통적인 금융업을 해체하며 금융혁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실제 핀테크 기업들은 송금, 결제, 해외이체, 대출, 자산관리 등 다양한 서비스를 내놓으며 서비스분야의 혁신을 이끌어가고 있으며, 그 영역을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오픈뱅킹, 금융산업 진입장벽 완화, P2P 금융법,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샌드박스, 데이터 3법 등으로 인하여 핀테크 산업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가 대폭 완화됐고, 빅데이터, 블록체인, 인공지능 등 핀테크 기저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도 확산됨에 따라 핀테크 시장은 더욱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울러 금융당국이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에 발벗고 나서면서 스타트업과 대기업들이 개인신용정보의 활용이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 통해 다양한 금융서비스 모델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IT 기업들과 금융사들의 M&A 및 기술제휴 등이 확대되면서 핀테크 산업의 발전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암호화폐 · 블록체인을 활용한 핀테크 비즈니스는 STO, 스테이블코인, 외국환거래, 스마트계약 등의 과제를 안고 있으며, 최근 가상자산 기업을 대상으로 한 특금법 개정안으로 인하여 새로운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하지만 핀테크와 같은 신기술 기반 비즈니스 모델에는 언제나 그러하듯이 법적 리스크가 수반돼 있습니다. 관련 법규가 정비돼 가고 있으나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분명 존재하며, 이로 인한 비즈니스 불확실성 역시 산재되어 있어 신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들은 위기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에 톰슨로이터와 신기술분야의 법적 이슈를 리딩하고 있는 법무법인 · 특허법인 민후는 이번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를 통해 핀테크 비즈니스와 관련된 법적 이슈를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히 핀테크 기업이 겪은 법적 애로사항의 해소방안, 핀테크 비즈니스 모델별로 살펴보는 관련 규제 및 대응방안, 핀테크 BM특허 분쟁 사례 등 실제 핀테크 기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세션을 준비하였습니다.

본 세미나가 핀테크 비즈니스를 준비하고 영위 중인 기업에게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세미나 개요

- 행사일시: 2020년 3월 27일(금) / 13:00 ~ 17:00
- 행사장소: 코엑스 컨퍼런스룸 301호(3F)
- 참석대상: 스타트업, 핀테크 기업 및 관련 비즈니스를 준비 중인 기업 담당자 · 관계자
- 참가비: 144,000원

참가신청 및 문의

- 참가신청: 로앤비 교육센터 웹사이트(lawnbedu.com)
- 참가문의: 로앤비 교육센터 (02-3472-1410)

커리큘럼

시 간	세션 주제	강연자
1:00 ~ 1:20	Reception	
1:20 ~ 1:50	Session1. 핀테크 소송사례	김경환 변호사
1:50 ~ 2:20	Session2. 핀테크 비즈니스 모델과 법	최주선 변호사
2:20 ~ 2:50	Session3. 핀테크 비즈니스를 위한 데이터 활용법	양진영 변호사
2:50 ~ 3:10	Break time	
3:10 ~ 3:30	Session4. 핀테크 BM특허 분쟁 사례	이동환 변리사
3:30 ~ 4:10	Session5. 가상자산(암호화폐)과 핀테크 비즈니스	허준범 변호사
4:10 ~ 4:40	Session6. P2P 금융법/개정 특금법 해설	김경환 변호사
4:40 ~ 5:00	Q&A	

강연자 소개



김경환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 특허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변리사
-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원
- 금융감독원 블록체인 자문위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문변호사
- 방송통신위원회 법령자문위원
-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심사위원회 위원



최주선 변호사

- 법무법인 · 특허법인 민후 변호사/변리사
- 서울대학교 철학과
- 한국포스트휴먼학회 사무총장, 연구위원회 연구위원



양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 특허법인 민후 변호사/변리사
-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지식재산전공과정
-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법률자문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 위원



이동환 변리사

- 특허법인 민후 변리사
-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 한라특허법인 기계전자팀
- 특허법인 MAPS 전자기계그룹



허준범 변호사

-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과
- 방송통신위원회 공익법무관

법무법인 · 특허법인 민후

법무법인 · 특허법인 민후는 2011년 가을 법률사무소로 시작해 탁월한 인재를 꾸준히 영입하면서 2014년 법무법인으로 조직을 개편하였습니다. 이후 2019년 가을에 특허법인을 설립하였으며 동시에 조직을 기업법 · 지식재산 · IT신기술 · 금융증권 · 형사공정거래의 5개의 팀으로 분할하여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민후는 과거 네이트 해킹 사건, 오픈캡처 저작권 사건, 잡코리아 무단크롤링 사건 등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사건에서 괄목할만한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으며,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이나 기관을 상대로 '찾아가는 자문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기업의 생존은 블록체인, 핀테크, 인공지능 등과 같은 신기술을 비즈니스와 접목하는 것에 달려 있다는 점을 간파하고 해당 분야에 대한 소송능력이나 자문 역량을 키워, 이를 고객에게 다시 되돌려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본 법인은 블록체인 · 암호화폐 · GDPR 등을 주제로 하는 세미나를 수시로 개최하여 비즈니스 방향성을 제시하고 새로운 활로 개척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법무법인 · 특허법인 민후는 고객들이 새롭게 변화하는 시대를 그 누구보다 앞서 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법인에 대한 보다 자세한 소개 및 다양한 자문 사례 등은 공식 홈페이지(<https://minwho.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